

고창서 천연기념물 수리부엉이 구조

고창군 신림면 사무소 온규현 부면장은 지난 19일 눈이 많이 내려 주민 피해가 없는지 살피던 중 면사무소 뒤편 야산에서 눈 속에 날지 못하고 있던 수리부엉이를 발견해 구조했다.



구조된 수리부엉이는 곧바로 전북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에 인계됐으며 이후 건강상태 등 보호 관찰 후에 자연으로 다시 돌려보내지게 된다.

한편 수리부엉이는 천연기념물 제324호로 지정됐으며 멸종위기야생동식물 2급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고창=김성규 기자

고창 신림면서 천연기념물 수리부엉이 구조 화제

고창군 신림면에서 천연기념물 제 324호 수리부엉이가 구조됐다.

신림면사무소 은규현 부면장은 지난 19일 눈이 많이 내려 주민 피해가 없는지 살피던 중 면사무소 뒤편 야산에서 눈 속에 날지 못하고 있던 수리부엉이를 발견해 구조했다.

구조된 수리부엉이는 전북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 인계돼 이후 건강상태 등 보호 관찰 후 자연으로 다시 돌려보내질 예정이다.

김가성 신림면장은 “수리부엉이가 건강하게 다시 자연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자연보호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



각하고 야생동물들이 인간과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고창=남궁경종 기자

폭설에 갈곳 잃은 수리부엉이 구조

고창 신림면 온규현 부면장 발견 야생동물구조센터 인계

고창 신림면에서 천연기념물 제324호 수리부엉이가 구조됐다.

신림면사무소 온규현 부면장은 지난 19일 눈이 많이 내려 주민 피해가 없는 지 살피던 중 면사무소 뒤편 야산에서 눈 속에 날지 못하고 있던 수리부엉이를 발견해 구조했다.

신림면은 수리부엉이를 전북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 인계했으며 이후 건강상태 등 보호 관찰 후에 자연으로 다시 돌려보내질 예정이다.

김가성 신림면장은 “수리부엉이가 건강하게 다시 자연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자연보호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야생동물들이 인간과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한편 수리부엉이는 천연기념물 제324



도내에 폭설이 내리기 시작한 지난 19일 고창군 신림면 온규현 부면장이 면사무소 뒤편 야산에서 눈 속에 날지 못하고 있던 수리부엉이를 발견해 구조했다.

호로 지정됐으며 멸종위기야생동식물 2급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고창=박용관 기자(sco0747@)

고창군 야생 수리부엉이 구조

신림면 야산 눈속 발견 구조

고창 신림면에서 천연기념물 제 324호 수리부엉이가 구조됐다.

신림면사무소 온규현 부면장은 지난 19일 눈이 많이 내려 주민 피해가 없는지 살피던 중 면사무소 뒤편 야산에서 눈 속에 날지 못하고 있던 수리부엉이를 발견해 구조했다.

신림면은 수리부엉이를 전북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 인계했으며 이후 건강상태 등 보호 관찰 후에 자연으로 다시 돌려보내질 예정이다.



천연기념물 제324호 수리부엉이

한편 수리부엉이는 천연기념물 제324호로 지정됐으며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2급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고창=김준완기자 jwkim@

고창 신림면 야생 수리부엉이 구조

고창 신림면에서 천연기념물 제 324호 수리부엉이가 구조됐다.

신림면사무소 온규현 부면장은 지난 19일 눈이 많이 내려 주민 피해가 없는지 살피던 중 면사무소 뒤편 야산에서 눈 속에 날지 못하고 있던 수리부엉이를 발견해 구조했다.

신림면은 수리부엉이를 전북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 인계했으며 이후 건강상태 등 보호 관찰 후에 자연으로 다시 돌려보내질 예정이다.

김가성 신림면장은 “수리부엉이가 건강하게 다시 자연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자연보호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야생동물들이 인간과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한편 수리부엉이는 천연기념물 제 324호로 지정됐으며 멸종위기야생동식물 2급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고창=임동갑기자

천연기념물 '야생 수리부엉이' 구조 성공

고창 신림면 온규현 부면장, 보호 관찰 후 방생 예정



고창군이 구조한 야생 수리부엉이.

고창 신림면에서 천연기념물 제324호 수리부엉이가 구조됐다.

신림면사무소 온규현 부면장은 지난 19일 눈이 많이 내려 주민 피해가 없는지 살피던 중 면사무소 뒤편 야산에서 눈 속에 날지 못하고 있던 수리부엉이를 발견해 구조했다.

신림면은 수리부엉이를 전북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 인계했으며 이후 건강상태 등 보호 관찰 후에 자연으로 다시 돌려보내질 예정이다.

김가성 신림면장은 "수리부엉이가 건강하게 다시 자연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자연보호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야생동물들이 인간과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한편 수리부엉이는 천연기념물 제324호로 지정됐으며 멸종위기야생동식물 2급으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다.

신익희기자/syhee5311@hanmail.net

전북타임스

2016년 01월 21일 목요일 010면 지역

고창서 천연기념물 '수리부엉이' 구조

신림면서 폭설 속 헤매고 있어 구조 후 전북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 인계

고창 신림면에서 천연기념물 제324호 수리부엉이가 구조됐다.

신림면사무소 온규현 부면장은 지난 19일 눈이 많이 내려 주민 피해가 없는지 살피던 중 면사무소 뒤편 야산에서 눈 속에 날지 못하고 있던 수리부엉이를 발견해 구조했다.

신림면은 수리부엉이를 전북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 인계했으며 이후 건강상태 등 보호 관찰 후에 자연으로 다시 돌려보내질 예정이다.

김가성 신림면장은 "수리부엉이가 건강하게 다시 자연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자연보호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야생동물들이 인간과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한편 수리부엉이는 천연기념물 제324호로 지정됐으며 멸종위기야생동식물 2급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고창=강철수 기자





야생 수리부엉이 고창에서 구조

신림면사무소 뒤편 야산에서 온규현 부면장이 발견

고창 신림면에서 천연기념물 제324호 수리부엉이가 구조됐다.

신림면사무소 온규현 부면장은 지난 19일 눈이 많이 내려 주민 피해가 없는지 살피던 중 면사무소 뒤편 야산에서 눈 속에 날지 못하고 있던 수리부엉이를 발견해 구조했다.

신림면은 수리부엉이를 전북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 인계했으며 이후 건강상태 등 보호 관찰 후에 자연으로 다시 돌려보내질 예정이다.

김가성 신림면장은 “수리부엉이가 건강하게 다시 자연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자연 보호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야생동물들이 인간과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한편 수리부엉이는 천연기념물 제324호로 지정됐으며 멸종위기야생동물 2급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야생 수리부엉이 고창에서 구조

신림면사무소 뒤편 야산에서 온규현 부면장이 발견

고창 신림면에서 천연기념물 제324호 수리부엉이가 구조됐다.

신림면사무소 온규현 부면장은 지난 19일 눈이 많이 내려 주민 피해가 없는지 살피던 중 면사무소 뒤편 야산에서 눈 속에 날지 못하고 있던 수리부엉이를 발견해 구조했다.

신림면은 수리부엉이를 전북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 인계했으며 이후 건강상태 등 보호 관찰 후에 자연으로 다시 돌려보내질 예정이다.

김가성 신림면장은 “수리부엉이가 건강하게 다시 자연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자연 보호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야생동물들이 인간과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한편 수리부엉이는 천연기념물 제324호로 지정됐으며 멸종위기야생동물 2급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 신림면에서 구조된 천연기념물 제324호 수리부엉이.

고창서 천연기념물 야생 수리부엉이 구조

고창 신림면에서 천연기념물 제324호 수리부엉이가 구조됐다.

신림면사무소 윤규현 부면장은 지난 19일 눈이 많이 내려 주민 피해가 없는지 살피던 중 면사무소 뒤편 야산에서 눈 속에 날지 못하고 있던 수리부엉이를 발견해 구조했다.

신림면은 수리부엉이를 전북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 인계했으며 이후 건강상태 등 보호 관찰 후에 자연으로 다시 돌려보내질 예정이다.

김가성 신림면장은 “수리부엉이가 건강하게 다시 자연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자연보호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야생동물들이 인간과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한편 수리부엉이는 천연기념물 제324호로 지정됐으며 멸종위기야생동식물 2급으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다.

/정관진 기자

<카메라뉴스> 고창서 탈진한 천연기념물 수리부엉이 구조



(고창=연합뉴스) 전북 고창군 신림면사무소 뒷산에서 천연기념물 제324호로 지정된 수리부엉이가 구조됐다.

온규현 신림면 부면장은 19일 폭설이 내리자 주민 피해가 없는지 살피려고 마을을 돌다가 면사무소 뒤편 야산에서 날지 못하는 수리부엉이를 발견했다.

탈진한 상태로 발견된 수리부엉이는 전북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 인계됐으며 건강에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조관리센터는 수리부엉이가 건강을 회복하면 자연으로 다시 돌려보낼 예정이다.

천연기념물 제324호인 수리부엉이는 멸종위기야생동식물 2급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글 = 전성욱 기자, 사진 = 고창군)

sungok@yna.co.kr

고창군, 눈 속 헤매던 야생 수리부엉이 구조



【고창=뉴스시스】 김종호 기자 = 전북 고창군이 눈 속을 헤매던 천연기념물 제 324호, 멸종위기야생동식물 2급인 야생 수리부엉이를 구조해 동물보호기관에 인계했다.

군은 신림면사무소 직원들이 눈이 많이 내린 지난 19일 폭설로 인한 주민피해 상황을 살피던 중 면사무소 뒤편 야산에서 날지 못하고 눈밭을 헤매고 있던 수리부엉이를 발견해 구조했다고 20일 밝혔다.

수리부엉이는 건강상태 등 보호관찰 과정을 거친 후 다시 자연으로 다시 돌려 보내질 예정이다.

김가성 신림면장은 "수리부엉이가 건강하게 다시 자연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자연보호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야생동물들이 인간과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eun6685@newsis.com

고창서 폭설 속 헤매던 천연기념물 '수리부엉이' 구조



전북 고창군 신림면사무소 온규현 부면장은 지난 19일 폭설로 주민 피해가 없는지 살피던 중 면사무소 뒤편 야산에서 눈 속에 날지 못하고 있던 수리부엉이를 발견해 구조했다. (사진제공/전북 고창군 신림면) © News1 박제철 기자

천연기념물 제324호 수리부엉이가 폭설 속에서 헤매다 구조됐다.

전북 고창군 신림면사무소 온규현 부면장은 19일 폭설로 주민 피해가 없는지 살피던 중 면사무소 뒤편 야산에서 눈 속에서 날지 못하고 있던 수리부엉이를 발견해 구조했다.

신림면은 수리부엉이를 전북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 인계했으며, 이 부엉이는 이후 건강상태 등 보호 관찰 후 자연으로 다시 돌려보내질 예정이다.

맹금류인 수리부엉이는 이날 폭설 속에서 먹이를 구하려고 민가 쪽으로 접근했으나 먹이를 찾지 못하고 지쳐 날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림면은 인근에 고창 최고봉인 방장산이 있어 평소에도 담비, 수리부엉이 등 천연기념물로 보호받는 종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다.

천연기념물 제324호인 수리부엉이는 멸종위기야생동식물 2급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김가성 산림면장은 “3살 정도 돼 보이는 수리부엉이가 건강하게 다시 자연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자연보호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야생동물들이 인간과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박제철 기자(jcpark@)